



속담 하나 배우고 동시의 참 맛 느끼고

“줄담배 피우던 우리 아빠/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목 안에 혹이 생겼대// 이런 정말 담배 끊어야지./ 아빠가 우리 앞에서 다짐했어/ 이제 와서 담배 끊으면 뭐 해?/ 엄마가 또 잔소리를 했겠어// 건강 잃고 담배 끊다니...../ 아빠는 잔소리 들어도 짜”(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이성자 시인 속담 동시집 ‘영당이에 빨났다’ 출간 화제



지라의 뜻을 모르더라도 시를 읽으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한 지혜는 친근함과 시를 읽는 맛까지 선사한다.

작품집은 지혜뿐 아니라 어휘력, 표현력, 사고력, 관찰력 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배려했다. 속담 하나 외우고 시의 맛을 알고 나면, 이후부터는 속담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된다. 책 중간 중간 운지는 작가의 그림과 일러스트레이션이 곁들여져 보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새싹의 이시장을 맡고 있는 노원호 시인은 “시로서의 맛과 가치도 함께 느낄 수 있어 귀한 동시집”이라며 “속담 하나 외우고 시의 참된 맛을 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의미를 평한다.

한편 이성자 시인은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광주교육대에서 아동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계몽아동문학상, 우리나라좋은동시문학상,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작품집으로 ‘너도 알 거야’, ‘손가락 체운게’, ‘행이라고 부를 자신 있니?’, ‘두레실 할 아버지의 소원’, ‘땀! 특급비밀이예요’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재미있는 속담 동시로 풀어내

교사·학부모·학생 소통 공감

시집에는 모두 ‘끈기와 용기’, ‘바른 습관’, ‘시련 극복’, ‘신중한 태도’ 등 생활의 지혜 78가지가 형상화되어 있다. ‘티끌 모아 태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 ‘누워서 짐 벨기’, ‘수박 겉 핥기’ 등의 속담과 연관된 동시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스토리이자 잠언이다.

“어느 날/ 사육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몹시 슬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코끼리가/ “코호호” 하면서/ 긴 코로 사육사를 안아 주더라// 진심으로 보살피더니/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모양이야.”(“공든 탑이 무너지라”)

위 동시는 무엇이든지 공들여 일을 하면 반드시 보람을 얻는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혹 아이들이 ‘공든 탑이 무너

언어는 특정 사회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는 문화자산이다. 여러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언어 가운데 속담은 교훈과 지혜가 담긴 짧은 표현을 일컫는다. 속담은 시대를 초월해 삶의 길잡이 뿐 아니라 창의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재미있고 유익한 속담을 동시로 풀어낸 이색 작품집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영광 출신 이성자 시인이 펴낸 속담 동시집 ‘영당이에 빨났다’(청개구리)는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의 시라는 점에서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인은 ‘속담 동시’를 매개로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성자 시인은 “속담동시는 우리 문화의 특성과 일상의 상식을 아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 됨됨이, 성품을 가꾸고 기르는 데도 유용하다”고 작품집 발간 배경을 말했다.

시를 풀어내는 방식은 간결하고 소박하다. 누구나 속담을 쉽게 이해하도록 스토리 형식을 가미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속담에 담긴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이야기와 상황을 시로 형상화한 것.



‘시나위’ 보컬 김바다(왼쪽)와 기타리스트 신대철

‘시나위’ 수완에 뜬다

3일 수완호수공원에서 광산록페스티벌 ... ‘로맨틱편지’ ‘안녕바다’ 등 출연

2015 광산록페스티벌이 3일 오후 5시 광주 수완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 광산구가 주최하는 행사로 광주 MBC 대표 라이브 음악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과 함께 진행된다.

출연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록밴드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까지 다채롭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룹은 ‘시

나위’다. 기타리스트 신대철, 보컬리스트 김바다 등으로 구성된 시나위를 록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2012년 KBS2 TOP 밴드 시즌 2 준우승팀인 ‘로맨틱편지’, 실력과 인디 록밴드 ‘안녕바다’, 최근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를 통해 이름을 알린 ‘어쿠스틱 콜라보’, 모던 록의 절대강자 ‘뉴렛’이 출연한다. 그밖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신현희와 김루트’, 혼성 5인조 ‘울

스나이스’, ‘정음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광산아트포라(Artfora) 난장+관’이 벌어진다. 일종의 문화 예술시장인 ‘아트포라’에서는 3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착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며 각종 문화공연도 이어진다. 무료 관람.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국악관현악단 ‘한·몽골 교류연주회’

오늘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이 몽골 국립 마두금합주단을 초청, 한·몽 교류연주회를 갖는다. 한국과 몽골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다.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은 3부로 꾸며진다. 1부에서는 마두금 합주단이 ‘몽골 멜로디’, ‘아랍트’, 마두금 협주곡 ‘시트릴 싱송 고비’, 몽골 전통 악기인 야트가 협주곡 ‘바흐찬 돌리’ 등을 선사한다. 특히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성악인 허미(목소리로 두가지 성의 소리를 낸) 연주가 눈길을 끈다. 2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꾸민다. 국악관현악단 창단 20주년 기념 위촉곡이었던 ‘한을 담은 바다’를 비롯해 이번 공연에서 초연하는 ‘우랄알타이의 신명’, 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속대머리’, ‘배 띄워라’가 관객들을 만난다.

마지막 3부는 양 단체가 합동으로 꾸미는 무대다. 피리협주곡 ‘셀스타르’를 김광복 지휘자가 협연하며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신모듬 3악장을 연주한다. 피날레 무대는 한국의 ‘아리랑’과 몽골의 ‘몽골의 고향’이 장식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415-54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월, 도서관에서 그림읽기’ 강좌

광주시 광산구 도깨비 도서관

광주시 광산구 도깨비 도서관(중흥S-클래스 1차 앞)이 ‘10월, 도서관에서 그림읽기’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월요일(오전 7시 30분~9시)과 수요일(오전 10시 30분~12시)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퍼먹는 미술 이야기-철학예술의 콜라보 4인 4색’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철학과 미술이 중심 테마다. 1강(5일·7일)은 ‘철학 스캔들’의 저자 강성룡 광주교대(윤리교육과) 교수가 ‘철학이 그림을 만났을 때-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의 철학여행’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강(12·14일)은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 노트’ 이서영 대표가 ‘세잔, 장자를 만나다-근대 회화의 아버지 세잔, 장자와 함께 읽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3강(19·21일)과 4강(26·28일)은 김영일 박사와 김수옥 전대사대부총 교사가 각각 ‘성서에서 깨낸 서양미술사-신과 인간이 사랑한 천년의 그림 이야기’, ‘900억 원의 마블린 먼로-예술공장 CEO, PopArt의 제왕 앤디워홀’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한편 참가비는 광주시민센터 CMS 회원 8000원, 비회원 1만원(회 청감시 3000원)이며 수강시간은 월요일과 수요일 중 선택하면 된다. 문의 062-962-1279.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강성룡 교수

광주전남작가회의, ‘한국문학의 미래...’ 심포지엄

3일 광주 산수동 ‘오월의 숲’

표절 의혹과 잇따라 제기된 ‘문학권력’, ‘출판 상업주의’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예술지원사업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이슈가 한국 문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창작기금 지원 사업 희곡부문 1위로 통과한 이운택의 ‘꽃을 바치는 시간’의 탈락과 연출가 박근형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지원 포기 증용은 한국문학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독서 인구의 감소는 문학 출판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과연 한국문학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회장 조진태)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열어나갈 미래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일(오후 3시) 동구 산수동 문화사랑방 ‘오월의 숲’(국민생활체육센터 앞)에서 ‘한국문학의 미래와 조직 전망’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

엄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의 주최지만 각 권역별 지회에서 주관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작가회의는 작금의 문학적 위기를 풀어헤쳐나갈 방도와 예술가의 소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예정이다. 홍기돈·박태건 평론가가 발제자로 나서고 권혁소·이종형·정양주 시인이 토론자로 나서 작가회의가 구상하는 미래와 독자와의 소통 등 한국 문학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마지막 토론회는 11월 요산문학제가 열리는 부산에서 열린다. 문의 062-512-052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구 남영비즈타워가 상무비즈니스센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상무비즈니스센터

시청도보 5분 거리 | 관공서 밀집 지역 | 오피스 전용 빌딩 | 넓은 주차공간 | 저렴한 관리비

임대문의: 010-2633-1100 | 관리실: 062-381-5551 | Fax: 062-384-5551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도 제공하고 이쁘다든 배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